

여성의 기를 살려 끼를 맘껏 펼치도록 하자



인하대학교 교수 채재우
011-228-3507 fire@inha.ac.kr

오래전에 들은 “끔찍한” 농담이 있다.

6.25 전쟁 전에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그 선교사는 한 마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남편이 뒷짐 지고 저 멀리 앞서서 갈지자(之) 걸음으로 여기적거리며 걸어가고, 한참 뒤떨어져서 아내가 아이들 등에 업고 양손과 머리 위에 보따리를 이고 힘겹게 따라가고 있는 광경이었다. 외국인 선교사가 이런 괴기한 부부동반 나들이 풍경에 의아하여 물었다.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나들이(?)를 하냐고. 아내는 부끄러운 듯 말조차 하지 못하고, 남편은 의기양양 목청을 돋운다. 부부가 유별하거니와 감히 아내가 지아비의 그림자조차 밟을 수 있겠냐고. 그런데, 6.25 전쟁 후 그 외국인 선교사가 다시 입국하여 눈이 휘둥그레 할 만큼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아내가 훨씬 앞서서 힘없이

걸고 있고, 남편은 까마득히 멀리 처져서 여기적거리며 가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 선교사는 한국이 전쟁을 겪으면서 여권 신장이 이렇게 급격히 이루어진 것인가 의아해했다. 그는 감탄과 존경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이러한 이변의 배경을 남편에게 물었다.

“아, 답하기 좀 쑥스럽구먼!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지 않았겠소? 그 전쟁 중 죽은 남자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남자의 희소가치가 엄청 크다오. 안 그래도 남자가 없는데 여기저기 묻혀있는 지뢰라도 밟아 죽어버리면 어찌하겠소. 더 이상 남자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앞장서서 걸어야 하지 않겠소?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하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는 기결하고 말았다.

그런 이 땅의 여성들이 지금은 한국 경제의

도약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여권 신장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 여세는 지금까지의 설움을 한번에 날려버리려는 듯 자못 사납기까지 하다. '대 맞는 남편도 있다'는 보도에 약간 움찔하지만 나는 이런 추세가 지금까지 남자들의 기고만장한 여권 탄압에 대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여성에 대한 동등한 인권 보호 차원의 세계적인 추세 또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당연한 통과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국여성의 잠재 능력은 단순한 숫자 절반이 의미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많은 사실들로부터 알아챌 수 있다. 그동안 남자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던 골프장을 한국 여성들이 들락날락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여권이 신장되면서 최근에는 한국 여자들도 골프채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열악한 주위 환경 속에서 골프채를 단지기 시작한 한국 여성들은 요즈음 세계 골프 대회에서 휘황찬란한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IMF의 어려운 시절"에 어느 세계 골프대회에서 멋진 역전의 극적 우승 장면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선물한 박세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심어주었는가! 그 만큼 한국 여성들의 잠재 능력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

세계적 첼티스트인 장영주는 11살 나이에 국

제적 무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수미는 "공돌이"인 나도 아는 세계적인 소프라노이다. 이 땅의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일할 권리와 열정을 불과 얼마 전부터 허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세계무대에서 그들의 폭발적인 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 종목인 양궁에서도 한국의 여성은 독보적인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이 경기에서도 한국 여자 선수들은 흔들림이 없는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 땅의 남자로서 내 스스로를 되돌아본다. 이러한 탁월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나라 여성들의 기를 살리고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에 내가 과연 얼마나 기여를 해 왔는지를! 지금이라도 이만큼 재능이 탁월한 한국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어 그들의 끼를 세계무대에 담껏 펼치게 조그단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중국은 값싸고 우수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따라잡고 있다. 한국의 우수 엔지니어링업체 간부의 말이다. 중국에서 더 이상 대형 사업의 수주가 어렵다고 한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고부가 가치의 핵심 기술들을 선진국에서 들여다가, 중국에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 영업 패턴 정도는 쉽게 파악하여 이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스스로 고부가 핵심기술들을 개발하여 확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소위“ 카탈로그 엔지니어링” 사업은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한편, 일본은 무수히 많은 고부가 가치 핵심 요소 기술들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보유한 채 그들의 아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국내 굴지의 회사들이 고맙게도 IT 관련 산업들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경제를 지탱해 주고 있으나, 그런 수출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고부가 가치 부품 및 소재나 생산 설비 등은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상당부분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겉으론 벌고 속으로 밀진다는 말이다. 중국에서 간신히 흑자 내어 일본에 바친다고도 한다.

이러한 국제적 현실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고부가 가치 핵심 기술의 집중적인 개

발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섬세하고 예리하며 집중력이 우수한 고급 인력의 확보이다. 요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생명과학분야, 디지털산업분야 등은 고도의 섬세함과 예리함 및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몇몇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확인되듯이 한국 여성들은 탁월한 잠재력을 우리에게 자신 있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과연 한국 여성들에게 이런 분야에의 도전에 얼마나 기회를 주었나? 이런 분야에의 도전에서 그들의 기를 살리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과 격려를 해주거나 하였는가! 별 재능도 없는 남성들이 ‘골프장을 점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하겠다.

한국 여성들에게,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그 무궁한 끼를 폭발시킬 수 있는 여건과 격려를 보내야 한다. 